

###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환경운동을 바라보며

요즘 세간의 화두는 환경이다. 특히 수경스님, 문규현신부를 비롯하여 기독교의 목사와 원불교의 정남이 함께 새만금방조제 설치 반대를 내세우며 3보1배를 벌이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개발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 사회를 짓누르던 시대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명제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이제까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자연은 인간의 문명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고였으며, 그렇기에 자연과파괴를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최근 알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조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혹은 이것은 역시 인간들의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환경운동이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간들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되자 그 업보 역시 인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자연을 인간과 별개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서양문명 속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영광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과 인간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가 인간과 환경을 별개의 존재 내지는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전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왕반야경>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국토와 내가 둘이 아니다. 국토가 중생이며, 국토가 곧 부처인 것이다. 국토와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라 선언한다. 신도불이의 이론적 근거가 이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근본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의 하나인 <법구경>에서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없이 꽃가루를 채집하듯이 하라. 꿀벌은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며, 자연에게서 회복할 수 있는 자생력과 활력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상대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이 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분율>에서는 “땅을 파지 마라. 살아있는 나무를 꺾지 마라. 노지에 불을 놓지 마라. 고의로 축생들의 목숨을 빼앗지 마라. 벌레 있는 풀을 마시지 마라”고 말한다. 여기서 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 인간·자연,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

#### 환경보호될때 우리 삶·터전 운택

왔다. 그렇지만 불교는 출발 당초부터 자연을 인간과 별개의 존재로 파악하지 않았다. 문명이 자연과 인간과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초국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의 승리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과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서로의 안녕과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만 들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각각의 다양성과 그 속에 내재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불교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마음이란 의미의 의(意)와 인식의 대상이란 의미의 법(法)이란 구조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인식의 주체가 되는 의는 법이란 대상에 우리들의 의지를 끊임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법은 인간들의 의지를 수용하여 끝없이 변하는 동시에 반대로 인간의 의식에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와 법의 구조 속에서 의가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을 의미한다면 법은 자연을 포함한 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록 환경은 변화해 되어 있다고 보며, 동시에 인간의 의식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해 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살아 있는 나무도 생명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을 평등한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에는 <화엄경>이 있다. 여기서는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들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화엄은 일체의 존재를 법신불의 현현으로 파악한다. 때문에 그것이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인간 내지 생명체와 차별해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선 국토와 중생이 평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수경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며, 새만금 갯벌 살리기에 진력하고 있다. 그 속에 살고 있던,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슬한 생명들을 생각해보자. 환경을 파괴하며 개발하는 일에 대한 인간들의 산술적인 경제적 가치는 우리들의 눈을 현혹할 수도 있다. 당장은 약간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손만대를 생각한다면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들의 삶을 운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어리석음 벗는 것이 ‘성불’



### 혜경 스님

(서울 무설정사 조실)

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번뇌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뇌의 원인은 탐진치 삼독에 거만 질투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번뇌 중 탐진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우치(愚癡, 어리석음)가 가장 근원적이므로 어리석기에 탐욕도 부리고 성질도 내는 것입니다.

탐진치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치(무명)가 중심이 돼 작용하면 번뇌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불’입니다. 마음의 분별력이 없어지면 번뇌도 깨달음이 됩니다. 참선하는 것도 마음의 분별력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선 삼매에 들어가면 의식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마찰하게 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통하지만, 4차원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4차원 즉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체(體, 몸)와 용(用, 몸짓)의 한량없는 우주가 온통 내안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생명있는 몸이라면 반드시 몸짓이 있게 마련이며, 그것이 본디 하나임을 안다면 깨침의 세계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한 마디로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살도는 반야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란 너와 내가 하나 즉 동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의 최고 형태를 ‘동체대’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나쁜 습을 바꿀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세는 백만 날개를 지어야 날아갑니다. 보살도도 계속 연습해야 이뤄집니다.

<법화경>에서는 보살을 연꽃에 비유합니다.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으면서 다른 꽃보다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중생을 떠나서는 보살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떨어지면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 조건이 맞을 때 피어납니다. 한번 파종된 불성은 어떤 조건만 맞으면 피어납니다. 그것이 철매. 또 연꽃은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는 그 자리에서 약속되어 있어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갖추어 진다는 뜻입니다.

연꽃의 세 가지 덕은 인간세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으로 윤회하며 오락의 진흙 투성이가 되어 극히 무거운 죄로 더럽혀지면서 마음속에 불성은 언뜻처럼 계속됐습니다.

진흙 속에서 태어나지만 연꽃처럼 그것에 침해 받는 일이 없는 한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불성은 지옥, 축생도로 윤회하더라도 조금도 낡거나 훼손되지 않으며, 때가 되면 기필코 악을 띄우며 나타납니다. 인간들이 미덕의 뿌리를 쌓으면 동시에 선한 과



보가 약속됩니다. 반면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과보가 약속됩니다. 중생의 어리석은 눈으로는 인과의 도리를 꿰뚫어 볼 수 없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인) 하화중생(下化衆生: 과)은 하화중생(인하한 상구보리)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살이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면 동시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꽃이 필 때 동시에 열매를 맺는 연꽃의 화과동시(花果同時)의 덕(德)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우주가 생겨나면서부터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거룩한 부처님이 때 묻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은 채로 항상 계셨습니다. 인과가 동시에 생기는 것처럼 선근을 심기만 하면 성불은 틀림없습니다.

불교의 주안점은 ‘자기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만족했던 것이 불안으로 바뀌어 괴로워지고, 후회하며 그 현실에서 저절로 기쁨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자기에게 남득이 되는 생활철학인가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

## 기도는 눈앞의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 위한 간절함으로 하라



고 자기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자기창조인 반야를 탐구하는 자세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투쟁가운데 확신하고 체험해 가면서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실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형상은 없지만 성품은 이 세상에 두루 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있다는 것은 힘과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친견하려는 견불(見佛)의식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사바세상에서 떠나시자 직관을 통해 부처님을 느끼는 관불(觀佛)의식이 생겼지요. 그러다보니 수많은 부처님이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불, 비로자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등.

중생들은 대승경전에 의해 창출된 부처님이 항상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중생을 보호하지도, 제도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면 지금처럼 삼계에 중생이 있지도 않습니다. 벌써 부처님 제세시 일거해 제도됐을 것이니까.

지금의 불교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편이 너무 치중해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목적은 성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절에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소원성취와 입식기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원성취도 서원인 깨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방어진 중생에게 영기가 왜 왔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억만만 되풀이 되는 것이 영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기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위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놀임이나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제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기가 세우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릇돈을 쟁기는 모습
- 자유의 문이 열리고 영기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기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 특별 상담  
우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말미다 귀뚜라니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힘쓰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발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뻐승복 직원일동 -

순추복

조끼용배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 바지 ₩160,000	● 우무탁 ₩140,000	● W60,000
◆ 모직(울 50%) ◆ 관복 ◆ 순면(무늬있는 직물)			

라복

적삼조끼

바지

셔츠

		
● 구린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미 ₩160,000	● 모직 ₩160,000

		
라운드넥	자이언팅	원부
● ₩20,000 ~ 35,000원		

※ 적삼, 기사, 바탕 및 기타리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해동승복**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 마 · 가 · 목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상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상승이 출현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 (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나 허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공팔)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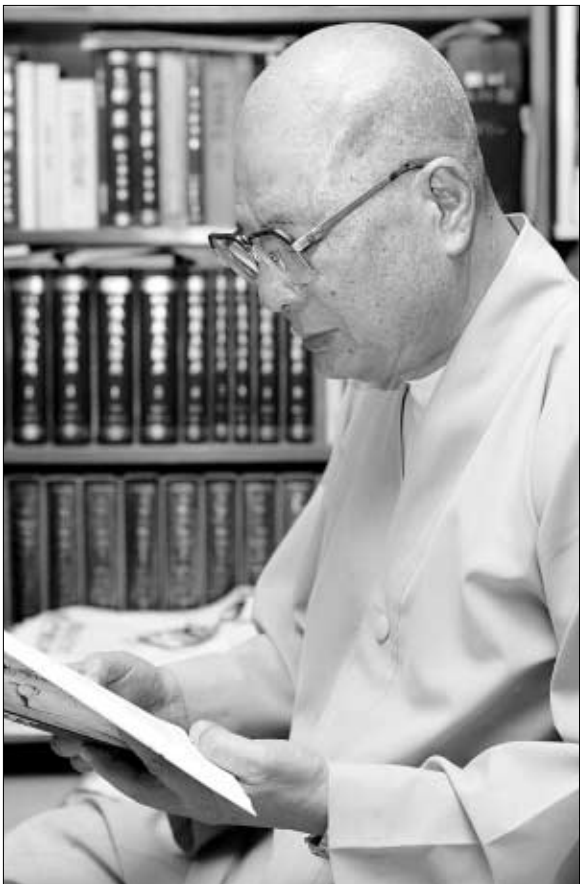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라스터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대진 입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평생 무욕의 삶을 살아온 혜경스님은 <법화경> 번역과 저술,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답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 입사, 사업성취 등 그야말로 목적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상보시가 안됩니다.

지금 절에서 하는 것처럼 경전의 힘을 빌어 병이나 고친다면 연천의 D교단처럼 생명수로 치료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필요는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인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마다 새로운 것이 운동이 벌어져 정법과 비슷하면서 형상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합심할 때 불교가 살아납니다. 사람과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끊임없이 어

리석음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는,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관계 없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중생들은 각자가 부단히 노력하여 스스로 성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건지는 이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불성

지옥·축생도로 유전한다해도

조금도 낡거나 훼손되지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틔워

근대 큰스님이신 탄허 스님이 '허공을 삼켰다'고 하는 것과 부처님께서 10월 초 여드렛날 '갯벌을 보고 깨웠다'는 것은 우주와 결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우주관 인생관을 갖게 될 때 명확해집니다.

지금보는 지구나 우주의 행성들도 알지못해 공처럼 먼지들이 무명식에 의해 화이트홀을 지나면서 팽창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성들도 중심자가 많아져 블랙홀로 빠지면 실질적인 질량은 사라하나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무명) 어리석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식(識)은 상속됩니다. 우리 인간도 먼지가 팽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지구도 먼지가 화이트홀을 지나면서 급속하게 팽창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덕혜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원스님



내가 현원스님을 처음 만난 것이 84년, 통도사 극락암 선원 여름안거에서다. 스님은 십여 세의 어린 나이로 표충사에 들어와 통도사 강원을 마쳤다. 현원스님은 그의 어머니 표현대리라면 '부처님전에 시주한 아들'이다.

선방에서 만났을 때는 20여세였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옛된 얼굴이다. 그 또래의 젊은 이들이 그렇듯이 잠이 많아 일선죽비를 치고 둘러보면 빈 좌복만 놓여있곤 했다.

"해도(현원스님 법호야) 죽비 쳤어, 빨리 들어가야지."

찾아보면 이불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곤 했다. 깨워도 응석부리는 아이 같이 몸을 더 구부리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입선시간마다 벌어지는 이런 밀고 당기기에 익숙해질 무렵 안거가 끝났다. 헤어지기가 서로 아쉬워 결망을 둘러면 우리는 철도 죽림사에서 한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다.



그림·문병성

한동안 선원을 다니던 현원이 어느 날, "나, 인도 여행하고 올게" 하더니 바람처럼 떠나고 나서, 4개월이 지나서야 돌아왔고, 잠시 토굴에서 정진하던 그는 다시 1년여 동안 50여 개국을 돌아보는 세계여행길을 혼자서 훌쩍 떠났다. 그로부터 터기의 소인이 찍힌 엽서가 배달되어 왔다.

"현봉나의 법호야! 여긴 이스탄불인데, 유럽으로 넘어갈 예정이야, 만약 유럽에 한국인 거지가 한 명 생겼다는 방송이 나오면 난 줄 알아."

몇 달이 지난 후 씩씩하게 돌아온 그는 여행 중의 실수담을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었다.

이런 현원과 내가 있어 93년은 아무래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해였다. 신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교회의 십자가만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건영그룹의 염상호 회장과 구룡사 정우스님이 건영이 짓는 아파트의 상가마다 포교당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 첫 번째 원력불사로서 다섯 군데의 상가에 포교당을 설립했다. 분당의 연화사, 문정동 법계사, 중

동신도시 서래사, 평촌 보림사, 송탄(현 평택)의 지산사와 4개의 유치원이었다. 이후 엄희장과 정우스님은 10개가 넘는 포교당과 유치원을 만들어 나갔고 이는 한국 불교 현대사에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 본다.

정우스님과 작은 인연이 있었던 나는 송탄의 지산사 주지로, 정우스님의 사제인 현원은 분당 연화사 주지로 부임했다. 그것이 선원의 수좌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포교인생의 시작이었다.

93년 5월 개원할 당시, 분당은 입주자 막 시작된 아파트들과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들로 곳곳의 길이 파헤쳐 있었다. 제대로 도시의 기능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현원스님은 적극적으로 포교를 시작했다. 짧은 시간내에 180평 법당을 불자들이 가득 찰 만큼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포교의 좋은 방법들을 조언하며 힘든 서로를 격려하곤 하였으니 사람 키우는 불사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불사라는데 공감했던 것이다.

포교당 주지라는 것이 힘든 자리라면 참으로 힘든 자리다. 아파트 안에 절이 있으니 매일 찾아오는 불자들의 눈이 무서워서도 예뻐 한번을 거를 수가 없다. 법당 염불소리가 시끄럽다고 목청높이는 이교도나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이에 포교당 문을 닫을

어머니 "부처님전 시주 아들"

신도시 지식인·어린이 포교 현신

수 밖에 없다. 현원스님은 포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나는 포교원에서 열심히 진리를 전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토굴의 스님들은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그러나 이 둘은 하나의 인연으로 묶인, 같은 수행의 다른 모습일 뿐이야."

어린이 법회, 거사법회, 일요가족법회 등 신도시의 지식인들에게 맞는 법회를 개설하고, 37번의 백일기도를 성취할 만큼 신심으로 투철히 동진 현원스님. 외국을 나갔다가 올 때도 어린이 법회의 아이들 주겠다고 하며 수백개의 초콜렛을 사서 무겁게 지고 들어온다.

도심포교에 헌신한 현원스님이 5월 17일 연화사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또다시 분당 시내에 440평의 땅을 사고 50여 여원의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법당을 완성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새 도약을 꿈꾸는 스님은 분명 부부나존자의 후예인 것 같다.

덕혜스님은 1969년 전북 진안 소로로 78년 법주사에서 출가, 79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받았고, 이후 92년까지 전국 선원에서 참선정진했으며, 지산사·달서사 주지와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정법사 주지와 남대문 경향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기자가 본 혜경 스님

혜경 스님은 1933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56년에 서울에 사회과학 졸업한 후 불교에 귀의했다. 법명은 혜경(惠耕) 당호는 회옹(晦翁),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과 법화불교대학 학장을 지냈다. 스님은 85년부터 현재까지 무של정사에 주석하며, 경전번역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법화경 번역의 권위자로서 경전공부모임을 이끌어 출·재가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이 번역·저술한 불경만도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

법화경의 권위자...수많은 경전번역·저술

법화경 홈페이지 준비...후학위한 배려

부경>(문화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근무무상경>(집문당) 등 다수. 스님의 저술은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학을 아우르는 해박함과 정교한 논리로 부처님의 교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스님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가르칠 때도 항상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보살행으로 나아가길 것을 강조한다. 스님은 요즘 법화경과 관련한 홈페이지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까지 해온 저술과 번역작업이 후학들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일

인 만큼 미래세대가 이에 바탕하여 한층 넓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도용되는 방편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의 생활은 '무욕' 그 자체이다. 평생 어느 것도 소유해본 적이 없다. 사찰의 주지를 맡아 본 적도 없다. 사찰을 지어 곧바로 불교재단에 상좌 명의로 등록한 뒤 작은 방 한 칸만 얻어 살고 있다. 사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도 모두 불교재단 명의로 상속했다. 스님의 삶은 한마디로 보살도의 삶 그 자체이다.

명가의 명향 - 건강향.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퇴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곱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형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업정 보현행원품에 알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물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리려고 오분향제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예군연식 억제)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생기향(생기향 - 건강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멀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고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 휴연실 담배냄새 제거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도·중풍·베·간·성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현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넘는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헌신향을 애용합시다. ☎02) 538-7161 http://www.hyangga.com

영도량 영험량. 빅마슈 애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명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조 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法徹一愚 譯解 秦華淨園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신본. 碧巖錄 卅餘年前初學時 黑底字兮白紙紙 譯解書刊將十載 有求索人付意味 果師繞却成學語 至今流通一場愁 抹底何害限碧巖 看他本師程漿時 無所說已多語 倚天太阿不容擬 - 泰華淨園 - 300절 인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3672-4276